

장선우 감독

“자기의 방식을 찾으려니 고통스러운거죠”

스크린 가득 부처님법 펼칠 날 언제일까?

1990년대 영화 ‘화엄경’은 장선우 감독이 고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화엄경’은 불교 영화 중 수작이라는 대중적 인지도 외에도 뛰어난 작품성으로 장선우 감독에게 제32회 대중상 감독상과 44회 베를린 영화제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안겨줬다.

‘화엄경’ ‘경마장 가는 길’ 등 1980~1990년대 총무로 주름 잡았던 장선우 감독을 서귀포 앞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물고기 카페’에서 만났다.

장 감독은 아내와 함께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서 물고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카페에서 본 그는 폭 늘려온 모자에 티셔츠,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정 고무신이다.

“원래 흰 고무신을 신고 있었는데, 이걸 누가 선물로 주더라고요. 받은 지 얼마 안돼서 실내용으로 신고 있습니다. 정말 편하거든요.”

장선우 감독은 ‘우묵배미의 사랑’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1990), ‘너에게 나를 보낸다’로 청룡영화상 감독상(1994), ‘화엄경’으로 대중상 감독상(1994), ‘꽃잎’으로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 최우수작품상(1996·1997)을 받는 등 잘나가는 감독이었다. 2002년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 흥행에 실패했고, 2005년 몽골에서 제작에 나섰던 ‘천개의 고원’도 여의치 않아 도중에 접어야 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제주도에 눌러 앉았다.

장 감독은 서울 토박이다. “처음에는 3개월만 살아보자는 마음이었는데 벌써 5년째 제주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마을에 위치한 카페이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찾아오는 사람은 많은데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으니(웃음)…”

물고기 카페가 위치한 대평리는 제주에서도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특히 마을 서편을 깎아 지른 듯한 암벽 ‘박수기정’이 절경이다. 대평 앞바다에 병풍처럼 서 있는 박수기정은 탄성을 절로 자아내게 했다. 1년 내내 샘물이 솟아 이 물을 바가지로 마신다는 뜻의 ‘박수’와 절벽의 의미를 가진 ‘기정’을 합친 박수기. 그 박수기정과 손에 잡힐 듯 부서지는 서귀포 앞바다가 보이는 물고기 카페에서 이야기가 시작됐다.

그는 불교와의 인연을 운명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말이예요. 사춘기 때부터 삶의 고민이 시작됐어요. 인생에 대한 의문들이 끊임없이…: 니체, 라즈니쉬, 들뢰

즈, 장자, 노자 등의 사상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답을 구해 갔죠. 어느 때는 성경을 보기도 했어요. 그때 한 책을 만났는데 그게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예요. 그 책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때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불교에 관심이 생겼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선지식’에 정말 목말라 있었죠. 하지만 여기 와서 스승을 찾았어요. 이제 더 이상 방향은 없을 거예요.”

장 감독은 제주도에서 어떤 인연으로 스승을 만났을까? “2008년쯤 불교인재개발원의 한 분을 알게 돼 초기경전을 접하게 됐어요. 그 당시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었어요. ‘아, 부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여기 와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됐죠.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 행복감…”

장선우 감독은 무언가를 찾아 헤맬 때는 만나지 못했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으니 스승이 저절로 온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장선우 감독이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70년대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1975년에는 서울대 김상진 열사의 합복 사건이 있었고, 그 이듬해 학우들과 1주기 추모집회를 주도하다가 장 감독이 체포되기도 했다. 1980년대 마당극을 시작하고 또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서 수감생활도 했다. 그 후에 문화운동에 뛰어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영화를 택했을까.

“삶의 진정한 의미, 행복의 의미, 무엇이 진실인가 그런 고민들의 답을 찾아 헤매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사춘기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의문이 들어요.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지. 그런 질문의 답을 구하는 과정이 영화예요. 그 중 영화 ‘화엄경’은 그런 저의 의문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죠. 영화에서 주인공 선재가 엄마를 찾아가는 구도 과정이, 제가 선지식을 만나길 바라는 간절함이었어요.”

“사춘기 때 접한 <시다르타>는 적잖은 충격이었어요. 이제껏 알지 못했던 이우·인류·평등·이타 등의 개념들을 접하면서 다른 세상을 만난 것 같았어요. 저는 사회의 부조리함을 바로 잡아 모두 평등하게 바꿨죠. 제가 무언가를 한번 시작하면 치열하게 하는 편이라 운동도 했고, 덕분에 전과도 많죠.(웃음)”

장선우 감독은 고등학교 때 자퇴 경력도 있다. “고등학교 때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입시에 매달려



스승을 만나다 행복하고 슬프다

우빠카! 살면서 겪는 어떠한 흥망성쇠에도 흔들리지 말고 평온하길!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가?, 이런 질문의 답을 구하는 과정이 그의 영화다.

공부하는 친구들이 꼴 보기 싫더라고요. 순간 화가 났죠. 뭐한다고 이런 경장하고 있나 싶었어요. 그대 로 저는 등록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발길 닿는 대로 걸어 절에 가게 됐어요. 거기가 변산반도에 있는 절인데, 그곳에서 2개월 정도 머물렀죠. 그곳에 있는 동안은 정말 편안했어요. 끊어오 르는 번뇌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2개월간 절에 있었던 힘으로 장선우 감독은 입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고서 저 때문에 마음 고생한 ‘어머니 한번 웃 게 해 드리자’고 마음먹고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했 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과 절에서 기도한 힘으 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니 서울대에 합격하더라고요.”

장 감독의 불연(佛緣)은 제주도에서도 계속되고 있 었다.

“법화사에 가요. 그곳 주지스님은 계(戒)도 잘 지키 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거든요. 주지 스님 방이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는데 분위기가 좋아

요. 가면 연꽃도 보고, 차도 마시고, 또 부처님도 뵙 죠.”

“예전 어느 인터뷰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행복의 이미지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성냥팔이 소 녀의 재림’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쁜 여자와 야자 수가 있는 바닷가에 사는 것. 다른 하나는 선방 같은 데서 스님이 졸고 있는 것이예요.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의 모습은 불교를 잘 모르는 제게 조는 듯 보였 습니다. 평화로운 그 모습이 마냥 행복해보였죠. 여 기서는 그 두 개를 다 누릴 수 있어요.”

그에게 편안함과 행복감을 선사한 초기경전. 장선 우 감독이 그 초기경전을 통해 본 부처님의 모습은 어떤지 물었다.

“슬퍼요.”

초기경전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와 닿았을까.

“부처님은 잘못된 견해를 버리라고 했어요. 사람 들이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고 규정짓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 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사람 들은 자기 나름의 방식을 찾으려고 하니가 고통스러

운거죠.”

영화 ‘화엄경’에는 ‘꽃은 꽃을 잃어야 열매를 맺 고, 강은 강을 잃어야 바다에 이를 수 있고, 나는 나를 잃어야 허공이 돼요’라는 시가 나온다. 장선우 감독 은 그 시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였다.

“부처님은 끝없는 행복 길에 이르는 방법도 설명 했어요. 팔정도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오기 전까지 아무도 제게 팔정도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 았어요. 여기 와서 알게 됐죠. 부처님이 제 스승이라 는 것에 대한 확신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마음잡는 일이 참 어렵네요. 부처님을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 런 부처님께 답례를 하지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네요.”

한때 총무로에서 치열한 삶을 살던 장선우 감독은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으로 건너듯 남해바다를 지나 제주도 서귀포 안덕에서 그가 꿈꾸던 평화를 누 리고 있었다. 그가 차안으로 건너와 필름 가득 부처 님 법을 펼쳐 보이는 날은 언제일까?

우빠카! 삶이 평온하길!

글=박선주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